

지역 소식통

김제 지평선아카데미

11일 송은호 약사 초청 강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11일 제68회 지평선아카데미에 송은호 약사를 초청해 '건강부자들의 영양제 복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 약사는 경북 경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현직 약사이며 철학,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건축학과, 생명공학과, 철학과, 약학과 등 여러 전공을 공부하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강연과 책, 유튜브를 통해 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리는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일상을 비춘 14가지 약 이야기', '영화관에 간 약사'와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EBS 평생학교', 'SBS 좋은아침 황금마이크 프로그램 약사'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다.

이번 지평선아카데미에서는 건강한 노후 관리를 위한 영양제 복용방법, 영양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영양제를 복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평선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별도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참석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업 선도하는 농업인 품목별연구회의 활성화와 미래농업의 대응전략 및 리더 농업인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지난 5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있는 농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향후 농업 비전 소개와 품목별 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AD)의 농업적 활용에 대한 농업행정학 박사 김유열교수의 특강, 재해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에 대해 세움교육원 이창석 원장의 강의, 농업인 보조금 활용 지도 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귀농귀촌 9년 연속 1위

통계청 발표 이래 도내 1위 안 농처... 전체 37%로 압도적 수치

완주군이 9년 연속 전북지역 귀농귀촌 인구유입 1위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귀농귀촌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래 완주군은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8일 완주군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귀촌인 통계'에서 작년 한 해 완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는 5,675가구 8,3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전체 귀농귀촌 1만 7,417가구 중 약 37%를 차지하는 수치다.

완주군은 지리적 여건과 주택단지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로컬푸드로 대표되는 농업농촌도시로서의 강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완주군의 탄탄한 귀농귀촌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귀농귀촌 초기 정착 활동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주에서 살아보기'를 단계별로 추진해 지역을 알아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의 집,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 행복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체험의 살아보기 주거환경을 제공해 중, 장기 체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이 9년 연속 전북지역 귀농귀촌 인구유입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새내기 교육생을 위한 완주알기교육. (사진=완주군청 제공)

있다.

탐색을 거쳐 귀농귀촌을 한 경우 주택매입·신축·수리비 지원, 농지매입·임차비 지원, 교육훈련비, 이사비용, 영농정착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착한 귀농귀촌인이 지역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이주 전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능나눔활동, 마을활영행사,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내년부터는 예비 귀농인에게 시설농

업 운영 경험,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도 운영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정주여건 개선, 로컬푸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많은 도시민들이 완주군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유희태 완주군수,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 박차

확대간부회의서 "모두가 풍요롭고 삶의 만족도 높은 행복도시 완주 조성" 주문

유희태 완주군수가 민선 8기 후반기 군정 주요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8일 유 군수는 민선 8기 후반기 들어 처음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민선 8기 2년간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유치, 전국 군 단위 최다 인구 증가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며 "민선 8기 후반기에도 수소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군정 핵심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 김제시와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완주군은 익산시와 완주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산업철도 신설을 위해 공조할 계획이며, 김제시와는



새만금고속도로 이서면 IC개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유 군수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장과 읍면장 중심으로 조직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일하는 분위기에 조성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울러 하계 풍수해와 폭염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을 주

문했다.

이외에도 유 군수는 여름 휴가철 대비 주요 관광지 등에 대한 환경정비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 중심으로 환경 정화활동과 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다하고 특히 물놀이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수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발대식

완주군, 아동·청소년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추진

완주군 아동유무부즈퍼슨사무소와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아동·청소년 참여 중심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5일 완주군아동유무부즈퍼슨사무소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 발대식을 경천애인활성화센터에서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22명과 대학생 서포터즈 11명 등 총 33명을 활동가로 위촉했다.

발대식에는 방선영 바오밥 기후정의 공동체 대표가 '기후위기와 세계를 움직이는 아동·청소년'을 주제로 특강

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곡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탐정이 기후위기 권리 침해 사례 포토타비스 및 기후위기 정책사례를 발표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행동'을 주제로 아동·청소년의 권리환경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출된 개선방안은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제안하고,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아이는 사춘기, 부모는 갱년기' 교육

김제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인기' ... 오는 30일까지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아이는 사춘기, 부모는 갱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첫 회기에 성격을 검사와 감정 알아차리기 프로그램 체험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참여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부모 힐링타임'을 주제로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첫 회기에 성격검사와 감정 알아차리기 프로그램 체험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참여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증가

전년대비 9.3% 증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6월 부과했던 35억5,000만원의 제1기분 자동차세 중 28억6,000만원을 납기내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부과액 중 80.6%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인 71.3%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다. 시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후 시 공식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계시대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 납기 5일 전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

했다.

또 체납 차당 변호관 영치 활동 확대로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체납 시 변호관 영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자동차세 납기일이 다가오는 6월 말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일 동안 세정과 직원들이 직접 나서 거리 홍보를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들이 잊지 않고 기한 내 납부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재정 안정성을 위해 시민들의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